

2012. 2. 15.

보도자료

이 자료는 2월 16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한국경제의 재조명」 2차 공개토론회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앉지 않는 국민"

- 일 시: 2012년 2월 15일(수) 9:30 ~ 12: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KDI
- 후 원: 조선일보

- KDI는 2월 15일,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앉지 않는 국민'을 주제로 「한국경제의 재조명」 2차 복지 부문 공개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입장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핵심 현안인 복지부문의 현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정책대안을 모색함.
- 이번 토론회에서는 빈곤 구조의 변화가 향후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할 새로운 도전 과제임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전환을 제안함.
- 토론회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한재용 인지어스코리아 대표,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 등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시각에서 복지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개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

- KDI는 2월 7일부터 6회에 걸쳐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토론회를 개최, 총론, 복지, 일자리, 가계부채, 기업, 대외/북한 등 한국 경제 중요 현안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 정책방향을 제안함.

문의: 윤희숙 KDI 연구위원(02-958-4689)

- ❖ 첨부 1. 발표 요약
- ❖ 첨부 2. 「한국경제의 재조명」 2차 복지 부문 토론회 프로그램
- ❖ 첨부 3.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토론회 전체 일정

❖ 첨부 1. 발표 요약

[복 지]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앉지 않는 국민

윤 희 숙 KDI 연구위원

- 경제개발 이후 성장과 소득 분배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왔다고 평가되나, 최근 빈곤층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빈곤이 장기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남.
 - 이는 저개발국가와의 경쟁 격화로 경공업이 급속히 붕괴함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이 급증, 저임금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자체가 낮아진 것이 원인임.
 - 1996~2010년 기간 동안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비중은 78.2%, 20% 가구는 57.8% 감소함.
 - 2000년대 들어서는 27.4%의 가구가 장기적,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했으며, 장기빈곤 여부에는 취업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또한 최근 저소득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빠르게 감소해, 1996년 이후 저학력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폭은 OECD 국가의 14.5배 수준을 보임.
- 대상자 보호에 치중, 자립 지원 및 조기 개입에 취약한 복지정책 역시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빈곤층의 희망 수준을 낮추는데 일조함.
 - 복지 제도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해야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자립유인의 왜곡을 가져옴.
 - 또한 부족한 취업지원 서비스 인프라는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취약 계층이 구직을 위한 도움을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 대부분의 빈곤 아동들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 사회경제적 배경의 불리함이 온존되고 대물림되는 구조가 나타남.
- 장기적 빈곤층 형성이라는 초유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 논쟁은 실용성을 결여한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책목표와 괴리된 정책들을 양산하고 있음.
 - 정치권에서 복지 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으나, 정책의 지향점이나 실질적인 내용과 결부되지 않은 복지지출 규모 자체는 정책목표로 부적합하며, 정책의 내용이 자립을 촉진하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 개별 복지 제도의 특성에 따라 보편성과 선별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가 정치구호화되어 보육 등 이미 양적 확대가 상당히 이루어진 부문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재원을 확대
 - 경제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 0~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 2012년에는 상류층까지 0~2세 무상 보육이 확대됨.
- 장기 빈곤층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인적 역량 강화 및 자립지원을 통해 '소득의 사후적 재분배'뿐 아니라 '가능성의 재분배'를 위한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근로능력자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을 제한하고, 고용지원서비스의 틀 안에서 지원할 필요.
 - 국가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타고난 불리함을 극복하고 계층 이동을 이룰 수 있는 인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

- 취업 지원이나 직업 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누구나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일반회계의 기여 부분을 확대해야 함.
- 부처, 대상, 프로그램 간 칸막이를 없애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과 밀착된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

❖ 첨부 2. 「한국경제의 재조명」 2차 복지 부문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9:30~10:00	등록 및 네트워킹
10:00~10:10	개회사 현오석 KDI 원장
10:10~10:30	발 표.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앉지 않는 국민 윤희숙 KDI 연구위원
10:30~12:00	사 회 현오석 KDI 원장 토 론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한재용 인지어스 코리아 대표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

❖ 첨부 3.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토론회 전체 일정

회 차	주 제	제 목	개최일자
1차	총론	“뺏겨 걸린 한국경제, 탈출구는?”	2. 7(화)
2차	복지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앉지 않는 국민”	2. 15(수)
3차	일자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고용 창출”	2. 27(월)
4차	가계부채	“가계 부채, 한국 경제의 뇌관인가”	3. 6(화)
5차	기업	“양극화로 치닫는 기업 경쟁력”	3. 20(화)
6차	대외/북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의 성공조건”	3. 27(화)